

취업여부에 따른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윤선영¹ 신나나²

Sun-Young Yoon¹ Nana Shin²

ABSTRACT

*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9).

¹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nanashin@ewha.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early childhood. Specifically, we compared these relations for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The second through four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were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s,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es. First, parenting stress of non-working mothers was higher than that of working mothers and working mothers perceived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compared to nonworking mothers. Second, bo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stable over tim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reciprocal effects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Differences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ere found in the paths from parenting stress to social support. The implications of the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difference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i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nstruct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employment status, stability, reciprocal effects.

I. 서론

부모가 되는 것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육성하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부모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게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한다(Cmic & Booth, 1991). 특히 영유아기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탄생과 함께 가족 간의 역할과 경계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므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어

는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이 시기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신체, 정서, 사회, 인지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특히 강조된다.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은 어머니의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여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취업모는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으로 인해 비취업모보다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손수민, 2012;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백영숙, 2007)도 나타나고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나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수민, 2012; 송미혜 등, 2007; 신나리, 안재진, 2013; Forgays & Forgays, 1993).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영유아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 혹은 변화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합의된 경향성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는데, 이 시기 양육스트레스가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들(Crnic, Gaze, & Hoffman, 2005; Mulsow, Caldera, Pursely, Reifman, & Huston, 2002)이 있는 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증가(Crnic & Booth, 1991), 혹은 감소(Deater-Deckard & Scarr, 1996; Williford, Calkins, & Keane, 2007)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기 동안 안정적이라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며(Crnic et al., 2005), 자녀가 생후 15개월부터 36개월까지 그 정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ulsow et al., 2002).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9개월부터 36개월의 자녀를 둔 미국 중산층 가구 부모 79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Crnic & Booth, 1991)에서 자녀가 9~12개월일 때보다 30~36개월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Williford 등(2007)은 만2세에서 5세까지 백인 중산층 307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 만 1세부터 5세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ater-Deckard & Scarr, 1996).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특성이나 양육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 혹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이 시기 양육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

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요인으로(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Belsky, 1984; Raikes & Thompson, 2005), 지역 사회나 관계망, 친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영향(Gottlieb, 1983),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실제적 도움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애정 및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Cutrona & Suhr, 1992; Lazarus & Folkman, 1984; Sherbourne & Stewart, 1991). 취업여부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송미혜 등, 2007; 황영주, 1997). 특히 취업모의 경우 관계망 내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이은혜, 이미리, 1996).

영유아기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 여부에 비해 이 시기 동안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유사한 정도로 지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비록 Belsky와 Rovine(1984)이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부모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임신 중이나 출산 후 9개월 시점보다 출산 후 3개월 시점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영유아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이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영유아기는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 역동적이며 교류적인 관계가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며 취업여부와 같이 어머니가 직면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라 이 시기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뿐 아니라, 취업여부에 따라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혹은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심리적 부적응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김숙령, 윤다희, 2014; 양하영, 박혜원, 2011; 윤현수, 오경자, 2010; Belsky, 1984), 양육스트레스의 대처자원(Lazarus & Folkman, 1984)이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기능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4~10개월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고(문영경, 2012),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Crnic & Greenberg, 1990), 특히 배우자 등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현수, 오경자, 2010; Belsky, 1984; 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이러한 경향은 종단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변호순과 최정균(2010)은 미국 저소득층 미혼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만 3세 시기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켰음을 밝혔으며, Guralnick, Hammond, Neville 그리고 Connor(2008)는 48개월에서 78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2년 후에 측정된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더해,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Belsky(1984)의 과정 모형(process model)과 Barrera(1988)의 사회적 지지 저하 모델(social support deterioration model)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과정 모형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배우자의 선택, 친구관계의 형성, 직업의 선택, 배우자나 친구, 친척,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지지의 질을 결정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지지 저하 모델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실제 경험하거나 혹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거나(Shinn, Lehmann, & Wong, 1984), 한정된 지지의 자원을 소진하게 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게 한다는 것이다(Schulz & Tompkins, 1990). 실제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만성적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고(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정이, 박현순,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영유아기 동안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적 영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이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때 더욱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인생에 있어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는 전환기에 있으며, 이 시기는 역할의 유형이나 자원의 변화,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중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완화와 사회적 지지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어머니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 적절한 다각화된 양육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의 2~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매해 참여한 1,580가구 중 취업여부가 확인되는 1,569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자녀의 연령이 만 1세부터 3세가 되는 시기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가정의 삶에 여러 변화가 야기되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이다(Duvall & Miller, 1985).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이 시기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출산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변화가 큰 1차년도는 제외하였다.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집단과 2차년도에 참여하고 탈락한 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2차년도를 기준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성별, 자녀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선택적 탈락(selective attrition)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2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2차년도를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569)

변인	내용	취업		비취업		전체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모 연령	29세 이하	93	18.86	269	25.00	362	23.07
	30~34세	279	56.59	534	49.63	813	51.82
	35~39세	108	21.91	247	22.96	355	22.63
	40세 이상	13	2.64	26	2.42	39	2.49
	합계 혹은 M(SD)	493	32.27 (3.42)	1,076	32.02 (3.76)	1,569	32.09 (3.66)
모 학력	고졸 이하	84	17.04	386	35.87	470	29.96
	전문대졸	127	25.76	282	26.21	409	26.07
	대졸	228	46.25	382	35.50	610	38.88
	대학원 이상	54	10.95	26	2.42	80	5.10
아동 월령	합계 혹은 M(SD)	493	14.12 (1.10)	1,076	13.99 (1.03)	1,569	14.03 (1.06)
아동 성별	남	239	48.48	561	52.14	800	50.99
	여	254	51.52	515	47.86	769	49.01
평균 소득	합계 혹은 M(SD)	493	524.71 (760.74)	1,076	367.28 (539.59)	1,569	416.86 (619.80)

취업모가 493명으로 전체의 31.4%이었으며, 비취업모가 1,076명으로 전체의 68.6%이었다. 평균연령은 취업모가 32.27세($SD = 3.42$), 비취업모가 32.02세($SD = 3.76$)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취업모는 ‘대학교 졸업’이 228명(46.25%), 비취업모는 ‘고졸 이하’가 386명(35.8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평균 월령은 취업모는 14.12개월($SD = 1.10$)이고, 비취업모는 13.99개월($SD = 1.03$)이었으며, 성비는 취업모는 남아가 239명(48.48%), 여아가 254명(51.52%), 비취업모는 남아가 561명(52.14%), 여아가 515명(47.86%)이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수입은 취업모 가정은 524.71만원($SD = 760.74$)이었으며, 비취업모 가정은 367.28만원($SD = 539.59$)이었다.

2.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HD), Mann과 Thornbu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본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2차년도가 .85, 3차년도가 .86, 4차년도가 .87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그리고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도구적(3문항), 정서적(2문항), 사교적(4문항), 정보적(3문항) 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육아정책연구소(2012)에서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로는 도구적 지지는 ‘큰 일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 준다.’, 정서적 지지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사교적 지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 간다.’, 정보적 지지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도구적 지지는 .82, .82, .81, 정서적 지지는 .72, .71, .72, 사교적 지지는 .84, .83, .83, 정보적 지지는 .87, .88, .85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취업여부에 따른 각 연도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연도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모형을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두 변인 간의 종단적인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T1과 T2 시점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1: $t = 3.52, p < .001$, T2: $t = 2.91, p < .01$), 두 시점 모두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T1($t = -2.05, p < .05$)과 T3($t = -2.00, p < .05$)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T1과 T3시점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각 시점 내 그리고 시점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동일 시점 내에서 뿐만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 및 차이 검정

변수	전체($N = 1,569$)			취업모($n = 493$)			비취업모($n = 1,076$)			t
	$M(SD)$	왜도	첨도	$M(SD)$	왜도	첨도	$M(SD)$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T1	2.74(.64)	.10	.08	2.66(.62)	.16	.10	2.78(.65)	.07	.09	3.52***
T2	2.81(.64)	.11	.36	2.74(.62)	.25	.38	2.84(.65)	.04	.38	2.91**
T3	2.84(.65)	-.00	.03	2.80(.65)	.11	-.12	2.86(.65)	-.06	.12	1.70
사회적 지지										
T1	3.87(.64)	-.37	.48	3.92(.63)	-.19	-.12	3.84(.64)	-.45	.69	-2.05*
T2	3.86(.63)	-.34	.46	3.90(.64)	-.33	.20	3.84(.62)	-.35	.58	-1.84
T3	3.82(.64)	-.42	.59	3.86(.63)	-.34	.45	3.79(.64)	-.46	.63	-2.00*

* $p < .05$, ** $p < .01$, *** $p < .001$.

주.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아니라 각 시점 간에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각각의 시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두 T1과 T2(양육스트레스: $r = .65, p < .001$, 사회적 지지: $r = .63, p < .001$), T2와 T3(양육스트레스: $r = .68, p < .001$, 사회적 지지: $r = .64, p < .001$), T1과 T3(양육스트레스: $r = .64, p < .001$, 사회적 지지: $r = .60, p < .001$)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취업모의 경우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두 T1과 T2(양육스트레스: $r = .63, p < .001$, 사회적 지지: $r = .59, p < .001$), T2와 T3(양육스트레스: $r = .67, p < .001$, 사회적 지지: $r = .64, p < .001$), T1과 T3(양육스트레스: $r = .59, p < .001$, 사회적 지지: $r = .59, p < .001$)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도 높았다. 둘째, 같은 시점 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성은 T1(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30, p < .001$)과 T2(취업모: $r = -.27, p < .001$, 비취업모: $r = -.26, p < .001$), T3(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30, p < .001$)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시점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시점 간 상관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보다 선행 시점에 있는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T1과 T2(취업모: $r = -.29, p < .001$, 비취업모: $r = -.22, p < .001$), T2와 T3(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19, p < .001$), T1과 T3(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21, p < .001$)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보다 선행 시점에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도 T1과 T2(취업모: $r = -.20, p < .001$, 비취업모: $r = -.23, p < .001$), T2와 T3(취업모: $r = -.24, p < .001$, 비취업모: $r = -.25, p < .001$), T1과 T3(취업모: $r = -.14, p < .01$, 비취업모: $r = -.24, p < .001$)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1년 후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1년 후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표 3>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1. 양육스트레스 T1	-	.65***	.64***	-.26***	-.29***	-.26***
2. 양육스트레스 T2	.63***	-	.68***	-.20***	-.27***	-.26***
3. 양육스트레스 T3	.59***	.67***	-	-.14**	-.24***	-.26***
4. 사회적 지지 T1	-.30***	-.23***	-.24***	-	.63***	.60***
5. 사회적 지지 T2	-.22***	-.26***	-.25***	.59***	-	.64***
6. 사회적 지지 T3	-.21***	-.19***	-.30***	.59***	.64***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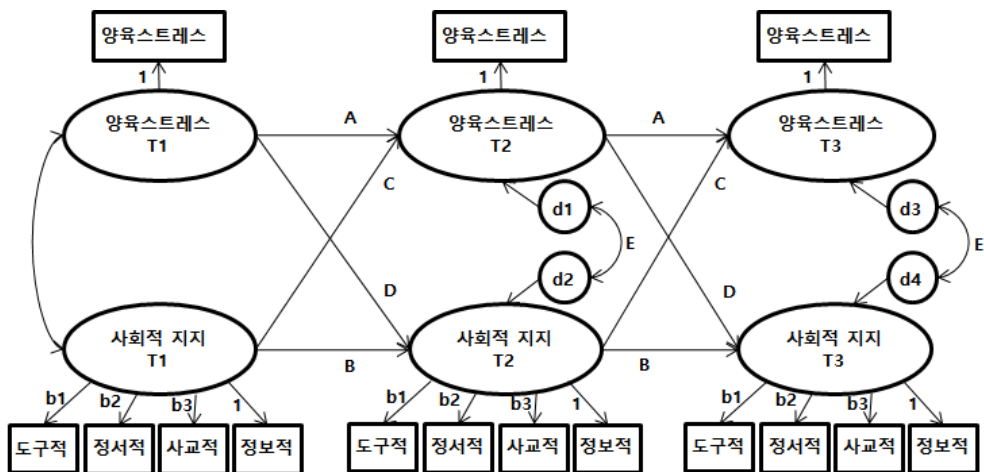
주1.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주2. 대각선 위는 취업모($n = 493$)의 상관계수, 대각선 아래는 비취업모($n = 1,076$)의 상관계수가 제시됨.

주3.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지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면의 제약상 사회적 지지의 총합을 사용하였음. 사회적 지지의 네 하위요인 간 상관성은 취업모의 경우 .40~.75, 비취업모의 경우 .39~.77이었으며 모두 $\alpha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음.

2.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의 안정성과 두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을 동시에 추정하여, 변인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인 [t-1]시점 값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을 누적적으로 검정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정된 변인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여 검정한다. 구조동일성은 각 잠재변수 간의 회귀계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가를 의미하며, 두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여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은 각 시점의 잠재변수 간 상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생잠재변수 간의 공분산을 제약하여 검정한다(김주환 등, 200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7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잠재변인이 단일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측정동일성 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형 1은 비제약모형, 모형2는 측정동일성, 모형3과 4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구조동일성, 모형5와 6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구조동일성, 모형7은 오차공분산동일성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그림 1]).



[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제약

주. b1, b2, b3 = 사회적 지지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서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제약; A =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B = 사회적 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C =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D =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E =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

7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고,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간명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을 파악하였다. 먼저 각 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과 NIF(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유의하지 않고 χ^2/df 값이 3보다 작으며, NFI, TLI, CFI가 .90 이상인 경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Kline, 2015). 또한 RMSEA는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매우 좋고, .08 이하면 양호하고, .10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다음으로 모델비교는, 각 모형이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χ^2 통계량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 즉 모형에 동일화 제약을 가했을 때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χ^2 값의 증가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χ^2 통계량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큰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으므로(Kline, 2015), 표본 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NFI, TLI, CFI, RMSEA를 모형 적합도와 모형 비교 시 함께 고려하였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모형1에서 모형7을 누적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측정동일성을 살펴보면, 모형2와 모형1 간 적합도 차이는 5.503($\Delta df = 6, 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도 비슷하게 유지되어($\Delta NFI = -.001, \Delta TLI = .006,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3$),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모형3은 모형2($\Delta \chi^2 = 2.646, \Delta df = 1, p > .05, \Delta NFI = .000, \Delta TLI = .001,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와 모형4는 모형3($\Delta \chi^2 = 5.076, \Delta df = 1, p > .05, \Delta NFI = .000, \Delta TLI = .001, \Delta CFI = -.001, \Delta RMSEA = -.001$)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영향과 관련하여, 모형5는 모형4($\Delta \chi^2 = 2.241, \Delta df = 1, p > .05, \Delta NFI = .000, \Delta TLI = .000,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와 모형6은 모형5($\Delta \chi^2 = .550, \Delta df = 1, p > .05, \Delta NFI = .000, \Delta TLI = .001,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1$)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영향 또한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검정 (N = 1,569)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Delta \chi^2(\Delta df)$
비제약모형	모형1 946.132***	74	.945	.917	.949	.086	
측정동일성	모형2 951.635***	80	.944	.923	.949	.083	5.503(6)
구조동일성	모형3 954.281***	81	.944	.924	.949	.083	2.646(1)
	모형4 959.357***	82	.944	.925	.948	.082	5.076(1)
	모형5 961.598***	83	.944	.925	.948	.082	2.241(1)
	모형6 962.148***	84	.944	.926	.948	.081	.550(1)
오차공분산동일성	모형7 963.203***	85	.944	.927	.948	.081	1.055(1)

*** $p < .001$.

〈표 5〉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모형7)의 모수추정치 (N = 1,569)

계수		b	β	SE	C.R.
자기 회귀	양육스트레스 T1 → T2	.64	.63	.01	45.840***
	양육스트레스 T2 → T3	.64	.65	.01	45.840***
	사회적 지지 T1 → T2	.66	.66	.02	42.303***
	사회적 지지 T2 → T3	.66	.66	.02	42.303***
교차 지연	양육스트레스 T1 → 사회적 지지 T2	-.05	-.05	.01	-3.599***
	양육스트레스 T2 → 사회적 지지 T3	-.05	-.05	.01	-3.599***
	사회적 지지 T1 → 양육스트레스 T2	-.07	-.06	.02	-4.401***
	사회적 지지 T2 → 양육스트레스 T3	-.07	-.07	.02	-4.401***
오차 공분산	d1 ↔ d2	-.03	-.16	.00	-8.181***
	d3 ↔ d4	-.03	-.17	.00	-8.181***

*** $p < .001$.

주.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을 살펴보면, 모형7은 모형6($\Delta \chi^2 = 1.055$, $\Delta df = 1$, $p > .05$, $\Delta NFI = .000$, $\Delta TLI = .001$,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오차들 간의 공분산이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잠재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측정동일성,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가정된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7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표 5>),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T1에서 T2($\beta = .63$, $p < .001$)와 T2에서 T3($\beta = .65$,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도 T1에서 T2($\beta = .66$, $p < .001$)와 T2에서 T3($\beta = .66$, $p < .001$) 사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차지연계수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T1에서 T2($\beta = -.05$, $p < .001$)와 T2에서 T3($\beta = -.05$,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1년 후 사회적 지지는 낮았다.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로의 교차지연계수 역시 T1에서 T2($\beta = -.06$, $p < .001$)와 T2에서 T3($\beta = -.07$, $p < .001$) 모두 유의하여, 이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

3. 취업여부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은 각 집단에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출된 최종모형이 동

일하게 적용되는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오차공분산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 순으로 내재화된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1에서 모형 7로 동일성 제약이 누적되는 형태이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모형1: 집단 간 어떠한 동일성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 모형2: 사회적 지지의 측정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 모형3: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 모형4: 사회적 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 모형5: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 모형6: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 모형7: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 추가

그 결과(<표 6>), 두 집단 간 모형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비제약모형의 경우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형5까지 이전 모형과의 χ^2 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합도 지수도 거의 변하지 않아 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모형5와 모형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Delta \chi^2 = 6.416$, $\Delta df = 1$, $p < .05$, $\Delta NFI = .000$, $\Delta TLI = .000$,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 모형5가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자기회귀계수와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로의 경로는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형5의 결과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회귀계수의 경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T1 \rightarrow T2$: $\beta = .64$, $p < .001$, $T2 \rightarrow T3$: $\beta = .63$, $p < .001$)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T1 \rightarrow T2$: $\beta = .63$, $p < .001$, $T2 \rightarrow T3$: $\beta = .66$, $p < .001$),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T1 \rightarrow T2$: $\beta = .65$, $p < .001$, $T2 \rightarrow T3$: $\beta = .65$, $p < .001$)와 비취업모의 사회적 지지($T1 \rightarrow T2$: $\beta = .66$, $p < .001$, $T2 \rightarrow$

<표 6>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회귀교차모형의 동일성 검정 (N = 1,569)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Delta \chi^2 (\Delta df)$	
비제약모형	모형1	1048.120***	170	.939	.926	.948	.057	
측정동일성	모형2	1050.091***	173	.938	.928	.948	.057	1.972(3)
구조동일성	모형3	1051.219***	174	.938	.928	.948	.057	1.128(1)
	모형4	1051.524***	175	.938	.929	.948	.057	.305(1)
	모형5	1051.527***	176	.938	.929	.948	.056	.003(1)
	모형6	1057.943***	177	.938	.929	.948	.056	6.416(1)*
	모형7	1064.688***	178	.938	.929	.947	.056	6.7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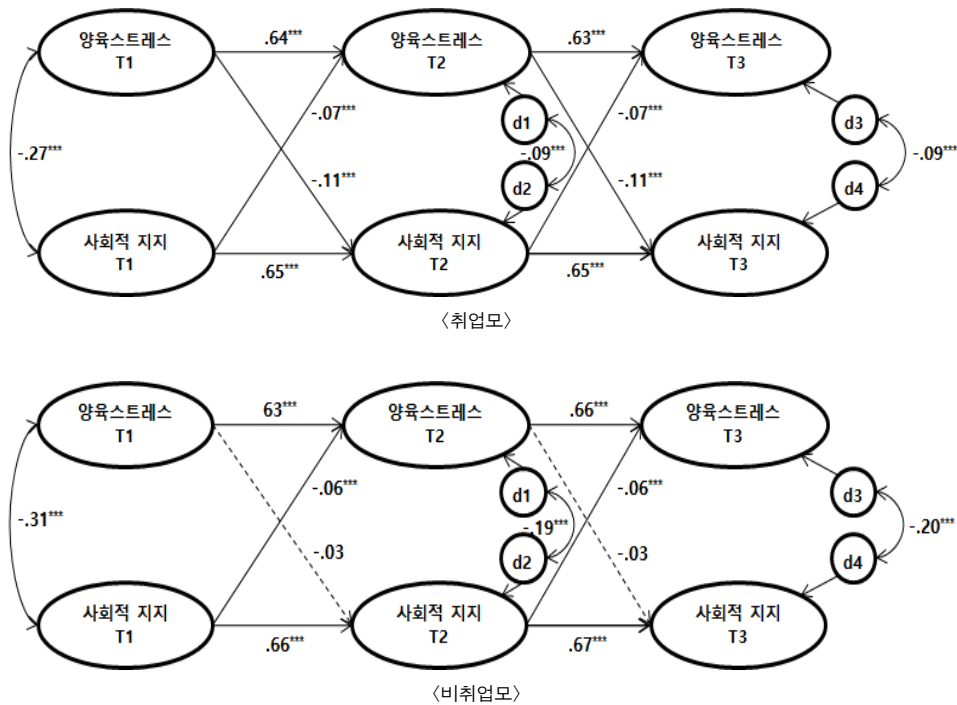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최종모형(모형5)의 집단 별 모수추정치

(N = 1,569)

계수		취업 (n = 493)		비취업 (n = 1,076)	
		b(SE)	β	b(SE)	β
자기 회귀	양육스트레스 T1 → T2	.64(.01)	.64***	.64(.01)	.63***
	양육스트레스 T2 → T3	.64(.01)	.63***	.64(.01)	.66***
	사회적 지지 T1 → T2	.66(.02)	.65***	.65(.02)	.66***
	사회적 지지 T2 → T3	.66(.02)	.65***	.65(.02)	.67***
교차 지연	양육스트레스 T1 → 사회적 지지 T2	-.10(.02)	-.11***	-.03(.02)	-.03
	양육스트레스 T2 → 사회적 지지 T3	-.10(.02)	-.11***	-.03(.02)	-.03
	사회적 지지 T1 → 양육스트레스 T2	-.07(.02)	-.07***	-.07(.02)	-.06***
	사회적 지지 T2 → 양육스트레스 T3	-.07(.02)	-.07***	-.07(.02)	-.06***
오차 공분산	d1 ↔ d2	-.02(01)	-.09***	-.04(.01)	-.19***
	d3 ↔ d4	-.02(01)	-.09***	-.04(.01)	-.20***

*** p < .001.



〔그림 2〕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 p < .001.

주1.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주2.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T3: β .67,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지연계수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경로는 취업모(T1 → T2: $\beta = -.07$, $p < .001$, T2 → T3: $\beta = -.07$, $p < .001$)와 비취업모(T1 → T2: $\beta = -.06$, $p < .001$, T2 → T3: $\beta = -.06$, $p < .001$) 모두에게 유의했으나,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는 T1에서 T2($\beta = -.11$, $p < .001$)와 T2에서 T3($\beta = -.11$, $p < .001$) 모두에서 취업모에게만 유의하였다. 즉,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후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지만, 양육스트레스는 이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과 상호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의 유의미함은 시점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세와 2세일 때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만3세일 때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는 취업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한다는 심리적 보상을 받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고양되므로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보이지만(손수민, 2012), 비취업모의 경우 반복적이며 일상적인 가사 노동이 자아실현의 욕구와 상충되어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제안한 선행연구(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와 흐름을 같이 한다. 만3세 시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만3세부터 보육시설이나 육아지원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들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 포함된 비취업모 가정의 경우 만2세에는 35.38%, 만3세에는 75.43%의 자녀가 부모 이외의 대리양육자의 도움 또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포함)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정미, 문승미, 김유정, 안선희, 201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세와 만3세 시점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지만, 만2세 시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시점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그 평균은 지속적으로 취업모가 높았다.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구의 평균소득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취업모 가구(524.71만원)가 비취업모 가구(367.28만원)보다 평균소득이 높았는데, 이로 인해 접근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사회 자본들이 증가하여(이운주, 진미정, 2013)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을 수 있다.

둘째, 전체 연구 대상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각각의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영유아기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었다. 즉,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Crnic et al., 2005; Thomason et al.,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증가(Crnic & Booth, 1991) 혹은 감소(Williford et al., 2007)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각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설계나 연구참여자의 자녀의 연령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Crnic과 Booth(1991)의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적용해 발달적 차이만을 보고하였으며, Williford 등(2007)은 만 2세에서 5세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새롭게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심신의 부담을 경험하며,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송미혜 등, 2007;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필요하며, 그 안정성을 볼 때 부모가 된 초기 단계부터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부모들에게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적절한 양육신념과 양육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전달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기본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은 출산 후 3년 동안 관계망의 구성원에서 탈락과 진입을 통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에서 그 전체적인 크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한 Lamer(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3세 시기까지 여러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성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영유아 시기 동안 안정적이라 함은 사회적 지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부터 사회적 지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출산 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러한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Belsky & Rovine, 1984; Bost, Cox, Burchinal, & Payne, 2002)을 고려해 볼 때, 출산 전부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출산 전부터 양육과 부모됨에 대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부모 모임이 구성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양육을 경험하며 상호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

며, 이를 통해 출산 후 지속적으로 정보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며 사교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두 취업여부에 따라 그 안정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인 양육시간이나 경제적 수준보다는 개별 양육자의 심리적인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송미혜 등, 2007; 윤지원 등, 2009) 및 사회적 지지(박정희, 장영애, 2004; 황영주, 1997)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취업여부에 따른 각 변인의 안정성을 밝힘으로써,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상황적 특성은 다를지라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전체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변인은 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호적 영향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유의하였으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1년 후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으며 이는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Armstrong et al., 2005; Belsky, 1984; Raikes & Thompson, 2005), 그리고 종단적(변호순, 최정균, 2010; Guralnick et al., 2008;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1년 후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였고, 취업여부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취업모만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후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다. 그간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졌으며,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장애아의 어머니 등 취약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애선, 2013; 이숙자, 2005)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에 제한이 있던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로 가는 종단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종단적 영향이 비취업모가 아닌 취업모에게서만 일어났다는 점인데, 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보유하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이윤주, 진미정, 2013), 사회관계망 내에서의 친밀감의 정도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지지를 덜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망의 구성원, 관계의 질, 만족도, 충성도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나 빈도, 지지의 형태 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안정성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이 시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상호적 영향의 경우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이후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일방향적인 영향만이 유의하였다. 기존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적 연구설계들을 사용하여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확대와 양육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결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는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자녀발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서비스나 보육지원비,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지를 확대한다면 양육스트레스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은 각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이 시기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 초기부터 두 변인 모두에 대한 개입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직장과 관련된 변인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직장 내 분위기의 융통성은 취업모의 역할갈등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 2015),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정유진, 정귀연, 2014).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내 문화조성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 비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지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초기부터 이루어질 경우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주말을 이용한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고, 폭넓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품앗이 양육모임(이윤주, 진미정, 2013) 등 공동육아를 지원한다면 사회적 지지로써 효과적일 것이다.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부모교육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사회적 지지로 기능하는데, 부모교육에는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기질과 정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손수민, 2012)이므로 아동발달과 기질, 긍정적 정서 형성을 위한 양육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부모교육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근거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에 국한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제공받게 되는 비공식적 지지(Amstrong et al., 2005) 외에도 사회복지제도나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 지지(Stevenson, Hen-

derson, & Baugh, 2007)를 포함한다. 양육의 부담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제도적인 지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적 관계망에 의해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국가나 기관을 통해 제공 받는 공식적 지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는 다측면적인 성격(Wellman, 198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와 함께 스트레스나 손실 또한 겪을 수 있으며(Belle, 1982; Brassard, 1982)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기능 뿐 아니라 부정적 기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상 2차년도에서 4차년도 사이 포함된 가정의 후속 자녀 증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녀수의 증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후속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하여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효과가 아니라 영유아기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적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취업여부에 따라 두 변인 간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종단적 검증을 통해 기존의 횡단모형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변인 간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고, 변인의 이전 상태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횡단 모형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엄밀하게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사회적 지지의 확대를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인식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숙령, 윤다희 (2014).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8, 41-62.
- 김정미, 문승미, 김유정, 안선희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관계

- 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79-9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경영학연구**, 36(4), 897-923.
-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문영경 (2012).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30), 165-177.
- 박애선 (2013). 자폐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 143-165.
- 박정희, 장영애 (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8(2), 327-353.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호순, 최정균 (2010). 미국 저소득 미혼모 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 133-162.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신나리, 안재진 (201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적 중단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5(5), 135-154.
- 신정이, 박현순 (2010).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낙인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31-256.
- 양하영, 박혜원 (2011).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행동 간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3), 99-11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육아정책연구소 (2012). **한국아동패널 2009 (2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윤현수, 오경자 (2010). 사회적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73-689.
- 이숙자 (2005).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주, 진미정 (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2), 229-239.
- 이은혜, 이미리 (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이재림, 옥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5), 49-63.
- 정미라, 차기주, 주연진, 김민정 (2015). 취업모의 직장 내 분위기의 융통성, 역할갈등,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433-454.
- 정유진, 전귀연 (2014). 가족친화제도와 조직문화가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3-28.
-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 황영주 (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B.,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arrera, M. (1988). Model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Beyond the buffering hypothesis. In L. H. Cohen (Ed.),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pp. 211-236). Beverly Hills, CA: Sage.
- Belle, D. (1982).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 (Ed.). *Lives in stress. Woman and depression* (pp. 133-149). Beverly Hills, CA: Sage.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 Rovine, M. (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2), 455-462.
- Bost, K. K., Cox, M. J., Burchinal, M. R., & Payne, C. (2002). Structural and supportive changes in couples' family and friendship network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517-531.
- Brassard, J. (1982). Beyond family structure: Mother-child interaction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Ithaca, USA.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1042-1050.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 Development*, 14(2), 117-132.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utrona, C. E., & Suhr, J. A. (1992). Controllability of stressful events and satisfaction with spouse support behaviors. *Communication Research*, 19(2), 154-174.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1), 45-59.
- Duvall, E. R.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Y: Harper & Row.
- Forgays, D. K., & Forgays, D. G. (1993).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contributing to parenting stress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wom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2), 107-118.
- Gottlieb, B. H. (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CA: Sage.
- Guralnick, M. J., Hammond, M. A., Neville, B., & Connor, R. T.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es an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and dimensions of child- and parent-related stres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12), 1138-115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Y: Guilford Press.
- Larner, M. (1990). Changes in network resources and relationships over time. In M. Cochran, M. Larner, D. Riley, L. Gunnarsson, & C. Henderson (Eds.), *Expanding families* (pp. 181-20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nn, M. B.,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3), 451-464.
- Mulsow, M., Caldera, Y. M., Pursel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 Quittner, A. L., Glueckauf, R. L., &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66-1278.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 Schulz, R., & Tompkins, C. (1990). Life events and changes in social relationships: Examples, mechanisms, and measure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1), 69-77.
- Sherbourne, C. D., & Stewart, A. L. (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 Medicine*, 32(6), 705-714.
- Shinn, M., Lehmann, S., & Wong, N. W. (1984).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55-76.
- Stevenson, M. L., Henderson, T. L., & Baugh, E. (2007). Vital defenses social support appraisals of Black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8(2), 182-211.
- Thomason, E., Volling, B. L., Flynn, H. A., McDonough, S. C., Marcus, S. M., Lopez, J. F., et al. (2014).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postpartum mothers: Bidirectional or unidirectional effec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7(3), 406-415.
- Wellman, B. (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B. H. Gottlieb (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pp. 171-120). Beverly Hills, CA: Sage.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2), 251-263.

논문투고 : 16.10.15
수정원고접수 : 16.11.24
최종게재결정 : 16.12.04